DAOL 다올투자증권

Market Weekly

check ME up!

Macro

Event

2026년 5월 2주차

리서치본부 투자전략팀

조병현 투자전략 | bhcho@daolfn.com

Ⅰ. Weekly Review *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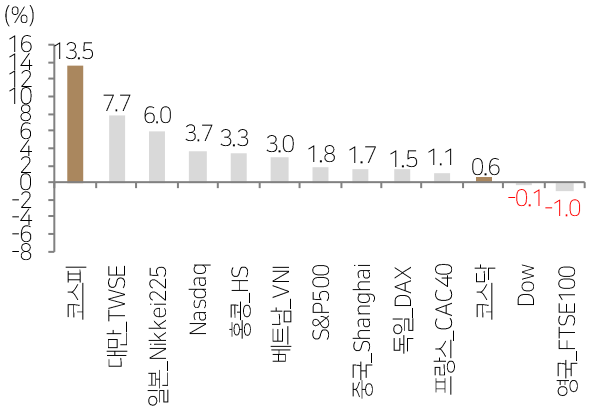
Ⅱ. 경제지표 Preview *3p*

Ⅲ.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4p*

Ⅳ. Key Chart & 핵심지표 *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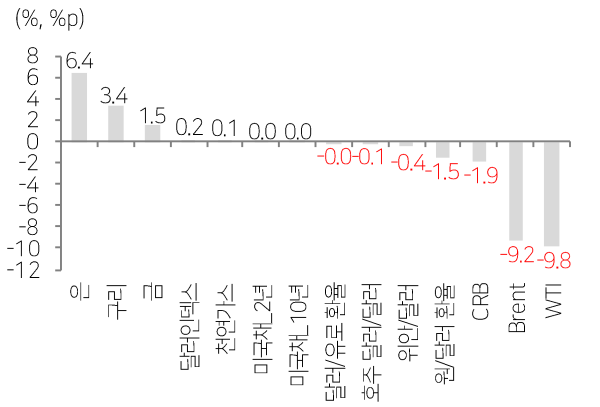
I . Weekly Review

글로벌 증시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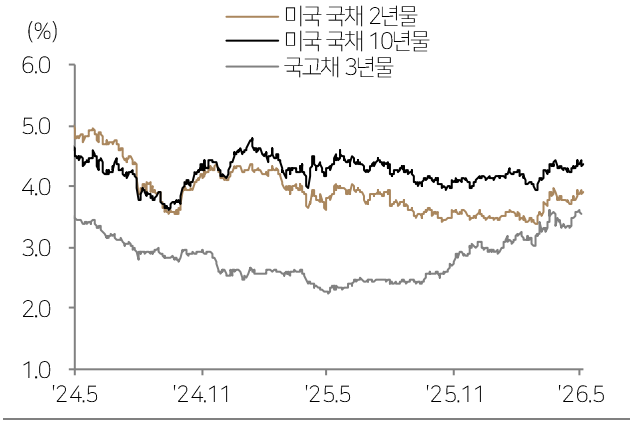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4/30일 대비 5/7일 종가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FICC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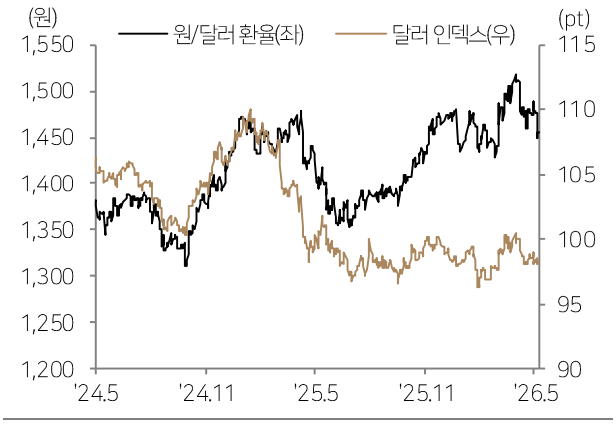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4/30일 대비 5/7일 종가 기준. 미국 국채는 %p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채권 수익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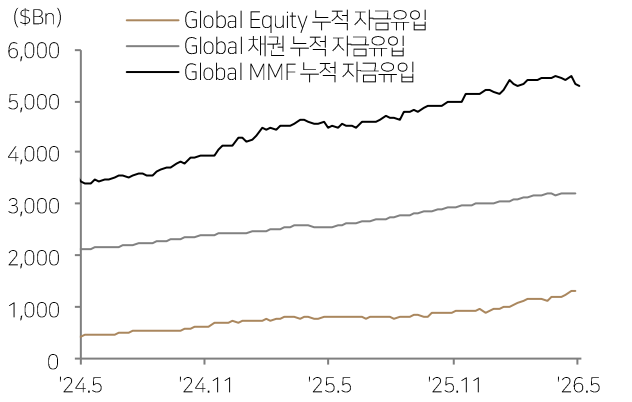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다올투자증권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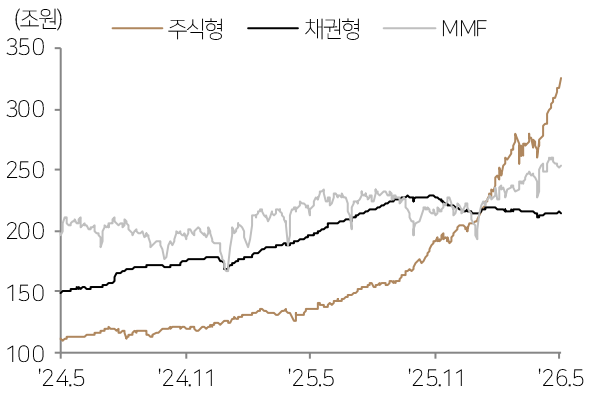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펀드 플로우



Source: Refinitiv, 다올투자증권

국내 자금동향



Source: Check Expert,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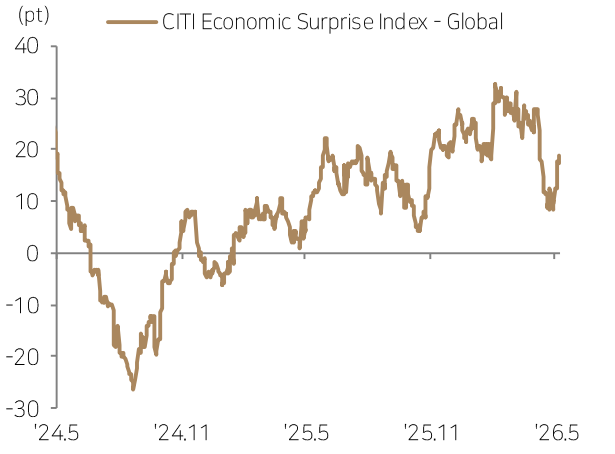
Ⅱ. 경제지표 Preview

- 높아진 유가 수준의 파급효과가 반영되기 시작한 물가지표들이 발표될 예정. 헤드라인 CPI는 3.7~3.8%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헤드라인 자체는 이례적인 급등만 아니라면 이미 인지되고 있는 사항일 것으로 보이며, 근원물가의 상승 속도가 가속화되는지 여부가 시장의 경계심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한국은행 측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확인되고 있음. 예상보다 강한 성장 모멘텀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입물가 등 물가 관련 지표들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경우 인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질 수 있음.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늠하는 차원에서 물가지표 확인이 필요

일자	국가/지역	일정 및 이벤트	단위	예상치	이전치
2026-05-11	한국	5월 수출/입 10일간	%yoy	-	36.7/12.7
2026-05-11	중국	4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1.8	0.5
2026-05-11	중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0.8	1.0
2026-05-11	미국	4월 기존주택매매	%mom	2.4	-3.6
2026-05-12	유로존	5월 ZEW 경기기대지수	Index	-	-20.4
2026-05-12	미국	4월 NFIB 중소기업 낙관지수	Index	96.0	95.8
2026-05-12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3.7	3.3
2026-05-13	한국	4월 실업률 계절조정	%	-	2.7
2026-05-13	유로존	1분기(2차) GDP 계절조정	%qoq	0.1	0.1
2026-05-13	미국	4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5.0	4.0
2026-05-14	미국	4월(속보) 소매판매	%mom	0.5	1.7
2026-05-15	한국	4월 수출/입물가지수	%yoy	-	28.7/18.4
2026-05-15	미국	4월 광공업생산	%mom	0.2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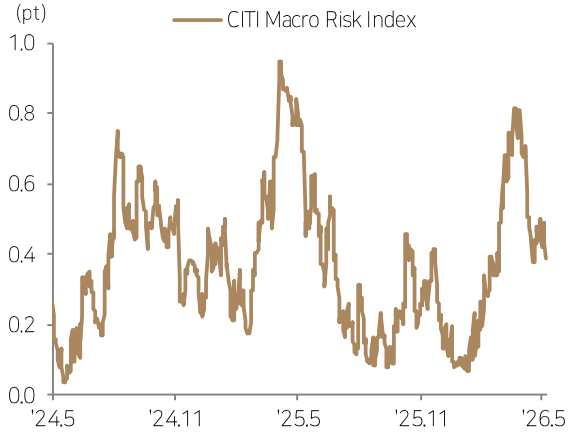
Note: 경제지표 발표일정은 한국시간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III.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일자	국가/지역	중요도	일정 및 이벤트	내용
5/14 ~15	미국, 중국	상	미·중 정상회담	▪ 회담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나, 정상회담 의제 및 사전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 언론 보도 등을 취합하면 대략 5가지 핵심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 ▪ ① 무역/관세(11월 만료 24% 관세 유예 갱신, 무역 및 투자 관련 상설기구 신설, ②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 연장 + 미국산 에너지·농산물 구매 확대, ③ 대만 문제(4/10 시진핑-정리문 국공회담 10년만에 부활), ④ AI 칩/반도체 수출통제 및 협력 논의, ⑤ 러-우 문제, 이란 문제 관련 중국 역할 촉구 논의 등
5/15	미국	상	제롬 파월 임기 종료	▪ 5월 15일 제롬 파월의 미 연준 의장 임기 종료 예정. 케빈 워시 후보자의 인준 관련 은행위원회 표결은 지난 29일 진행됐고, 상원 전체 표결은 5월 중 진행 ▪ 워시는 최근 청문회에서 1) 연준 독립성에 대한 의지 및 2) 인플레이션 대응 의지를 피력했으며, 3) 대차대조표의 점진적 축소, 4) 점도표 및 포워드 가이던스 재검토 등 연준 운영체계 '체제 변화' 예고. 매파 색채가 우위인 것으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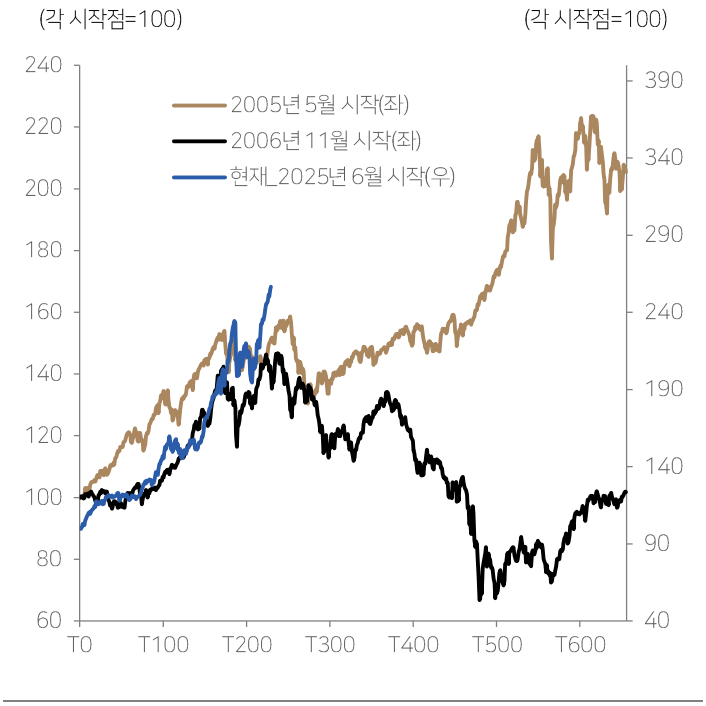
Note: 이벤트 발표일정은 한국 시간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일자	내용
금주 (04/30~05/07) 증시 동향	▪ KOSPI(13.5%), KOSDAQ(0.6%) 상승. KOSPI는 반도체(+25.1%), 증권(+16.4%), 철강(+11.8%)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미디어,교육(-5.9%), 필수소비재(-2.4%), 통신서비스(-2.3%) 업종 하락. 글로벌 반도체 랠리가 국내로 확산되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로 매수세 집중, 코스피는 사상 최초 7,500선과 시총 6,000조원을 돌파하며 강한 상승장을 이어감. 다만, 시장 내 일부 종목에만 거래대금이 집중되는 차별화 장세 전개 ▪ DOW(-0.1%) 하락, S&P500(+1.8%), NASDAQ(+3.7%) 상승. 미국 측 휴전 지속 확인, 양국의 양해각서 체결 임박 등 미·이란 전쟁 봉합 가능성에 투자 심리 회복하는 모습. 대형 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견조한 실적을 발표하고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자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 유입.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연신 최고치 경신하는 등 강세
차주 (05/11~05/15) 증시 전망	▪ 기술적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 삼성전자의 120일 이격도는 170pt에 달하며, 하이닉스는 198pt. 코스피도 147pt에 달함. 4월 이후 가파른 상승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피로도 누적을 무시하긴 어려움. 그러나 기술적 부담을 제외하면 여전히 견조한 이익 전망치, 그리고 낮은 밸류에이션이라는 버팀목이 상당히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음. 더불어 증시 유관자금도 여전히 우호적으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조정이 나타난다 해도 부담 해소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 가능성 측면에서, 미국 이란간 합의 도출, 미중 협상 등 불확실성 이벤트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주의. 현재 높은 금리와 기술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상황 개선에 대한 기대가 존재하나, 이벤트 해소 후에는 오히려 금리 등 제반 변수들의 부담이 인식되며 일시 조정을 만들 가능성 존재. 주도주의 기술적 부담이 존재하는 만큼 여타 업종에 대한 관심 확산도 자연스러운 수순. 업종 및 테마 별 순환도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음. 반도체 하락의 대안 관점보다 자체적으로 실적과 모멘텀이 존재하는 통신장비, 조선, 2차전지, 신재생 등은 관심의 대상. 물론 반도체, IT H/W 비중을 크게 축소하기는 어려움. 현 사이클의 중추가 되는 산업으로부터 먼저 이탈하는 것은 위험.

Note: 수익률은 전주 금요일 종가 대비 금주 목요일 종가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Ⅳ. Key Chart & 핵심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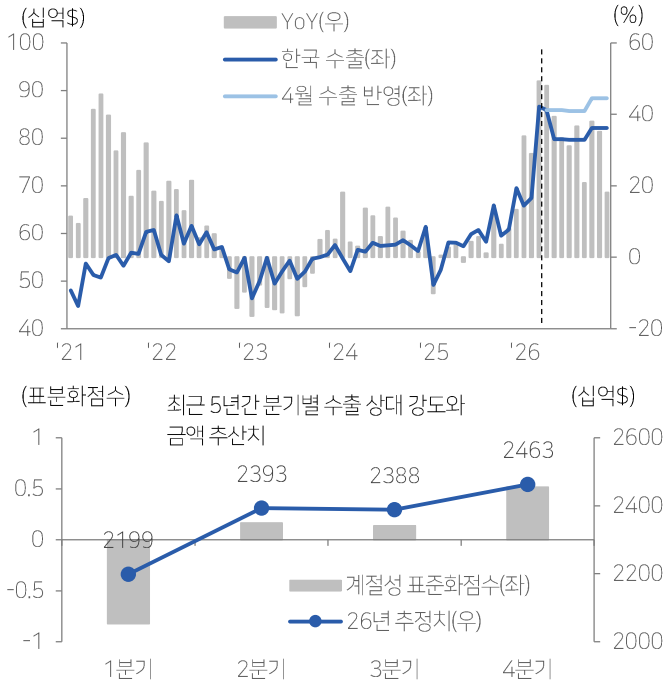
최근 1년간 상승장과 통계적으로 가장 유사성이 높은 두 국면, 2005년 5월과 2006년 11월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25년 6월부터 진행된 현재 상승장과 통계적으로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국면을 찾아 본 결과, 05년 5월 시작된 상승장과 06년 11월 시작된 랠리가 가장 유사한 것으로 꼽힘. 이 두 구간은 현재와 유사한 기간의 상승이 진행된 후 상이한 후속 국면이 전개
- 사실 두 국면은 같은 사이클의 전/후반부. 중국 WTO 가입, BRICs에 대한 관심에서 촉발된 글로벌 교역 증가 기대감이 신흥국 전반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산업재와 소재섹터가 각광. 06년엔 금리와 인플레이션 부담으로 잠시 쉬어가는 국면이 연출됐으나 누적된 부담 해소 후 추가 상승이 전개. 07년에는 누적된 민간 부채와 부실이 신용경색으로 연결되며 폭락
- 자세히 비교하자면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하나, 결론적으로 05년 5월 상승랠리처럼 추가 상승 여력을 보이는 경로를 진행할 것이라고 판단. AI 투자 사이클의 추가 국면이 남아있고,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시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잔존한다는 점, 민간과 은행의 신용이 07년만큼 부담스럽지 않다는 점 등이 차이

일반적인 계절성을 감안한 한국의 수출 경로, 기존의 예상보다 훨씬 높은 레벨을 보여줄 가능성 증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연초 정부는 올해 수출 전망치를 7,400억$ 정도로 제시. 지난 연말 시장 컨센서스도 이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기억. 그러나 예상보다 훨씬 강한 수출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미 1분기에만 2,200억$의 수출 금액이 달성됨
- 한국은 수출에 있어 뚜렷한 계절성이 존재. 1분기가 수출 금액이 가장 부진한 구간. 그림과 같이 표준화점수로 계산된 이 계절성을 그대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올해 연간 수출 금액은 약 9,500억$~9,860억$수준까지 도달 가능. 이는 하단 기준 전년 비 +22~27% 수준의 증가율
- 미래 수출 경로가 단순히 계절성으로만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수출에서 35%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에서 수급 불일치가 6개월 이내에 해소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본다면, 높아진 기저에 따른 증가율 상의 둔화는 있더라도, 하반기 수출 경로는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이익 전망치 등 여러 부문에 긍정적 소재로 작용할 수 있음

www.daolfn.com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본사영업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27층

DAOL 다올투자증권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